북 전쟁위협 커지는데…안보 상황에 둔감

광주시 담당 직원들은 군인들과 정례 '시티투어'

대피소 안내 소홀…지방의원들 해외연수 줄이어

초등학생 아들(11)을 둔 주부 김민영(40·광주시 광산구)씨는 요즘 북한의 위협때문에 불안하기만 하다. 김씨는 "정말 전쟁이 난다면 어디로 대피해야하고, 학교에 있는 아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많다"며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전쟁위협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와 지방의회 등은 안보상황에 둔감하다는 반응이다.

전쟁 등 비상상황을 전담하고 있는 광주시 관련 부서는 현역 군인들과 함께 광주시내를 둘러보는 행사에 나서는가하면 대피소 안내 등 위기상황 대처 업무도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시민 혈세로 앞다퉈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느라 정신이 없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비상대책계는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광주 주둔 군 부대인 31사단, 503여단, 1전투비행단을 비롯한 장성 포병학교, 광주지방경찰청(기동대) 등 5개 부대에서 추천받은 타지역 출신 장병 40명과 광주를 둘러보는 정례적인 '빛고을 투어'를 했다. 이들은 5·18광주민주화유적지, 시립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연 2~4회씩 실시되고 있으며,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 부대도 비상상황에서 군 장병을 '시티투어' 에 동행하도록 했다는 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대피소 안내(총 709개소) 등 위기상황 대처 업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

시는 대피소에 대해 국가재난정보센터나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그나마도 대피소 주소만 나와있어 장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 방재관리 관계자는 "작년에 대피소 알리기 등 대시민 홍보를 했지만, 관심이 저조해 올해에는 시 공무원에게만 대피소를 알렸다"며 "설령 대피소를 모른다 해도 전쟁이 나면 동사무소 등에서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일보의 취재 이후 '우리동네 대피시설은 어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줄을 잇고 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12명이 수행원 등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을, 강진군의원 3명도 최근 6박8일간 북유럽을 다녀왔다. 광주 북구의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개 팀으로 나눠 유럽과 중국 등지로, 남구의회 의원 8명도 같은 기간 그리스·터키, 싱가포르·말레이시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다만, 북구와 남구에서 활동 중인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은 연수 길에 오르지 않았다.

신안군의원 7명도 지난 8일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으로 떠났으며, 장성군 의회는 지난달 2개팀으로 나눠 일본과 유럽 연수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선호 직장상사' 유재석 '기피 부하직원' 박명수

잡코리아 설문조사

직장인들은 선호하는 직장 상사로 유재석, 피하고 싶은 부하 직원으로 박명수를 각각 꼽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달 19~31일 직장인 1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직장 상사 유형으로 말을 잘 들어주고 장점을 살려줄 것 같은 유재석이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확실한 리더십으로 나를 프로로 만들어줄 것 같은 양현석(27.3%), 꼼꼼한 성격으로 일을 잘 가르쳐줄 것 같은 손석희(10.3%),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줄 것 같은 이건희(7.4%), 강하게 훈련해줄 것 같은 강호동(3.4%)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부하 직원으로 피하고 싶은 유형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것 같은 박명수가 50.1%로 가장 많았다.

묻어가려고만 할 것 같은 길(19.1%), 업무 외에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정형돈(13.3%), 튀는 행동으로 호불호가 나뉠 것 같은 노홍철(12.7%), 식대가 많이 들 것 같은 정준하(4.8%) 등의 답변도 있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가 88.0%에 이르렀다. 이 중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91.7%였다. /연합뉴스

'전통 발효식품 체험교실' 11일 광주시 남구 임암동 김치타운 체험장에서 주부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전통 발효식품 체험교실'이 '맛있는 배추김치와 깍두기 담그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소득층 자녀 '사배자' 지원 못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내년부터 연소득 6703만원 이상땐 특목고·자사고 전형 배제

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의 사배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개선안은 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되 경제적 대상자를 사배자의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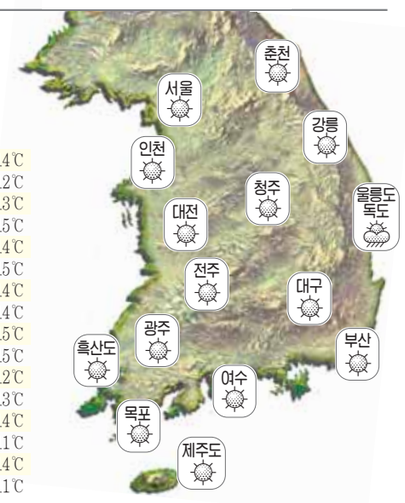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5분 해짐 19시 02분 | 달뜸 06시 55분 달짐 20시 55분

감기조심

맑지만 바람 강하고 기온 떨어지니 외투 챙기세요.

광 주	맑음	1/14℃
목 포	맑음	2/12℃
여 수	맑음	4/13℃
나 주	맑음	-1/15℃
완 도	맑음	4/14℃
구 례	맑음	-1/15℃
강 진	맑음	0/14℃
해 남	맑음	0/14℃
장 흥	맑음	0/15℃
순 천	맑음	-1/15℃
영 광	맑음	-1/12℃
진 도	맑음	2/13℃
전 주	맑음	1/14℃
군 산	맑음	0/11℃
남 원	맑음	-2/14℃
흑산도	맑음	4/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감기지수
관심	보통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3:23 15:26	08:32 20:39
여수	10:10 22:33	03:59 16:0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날 씨						
최저/최고	3/20	10/16	3/17	7/19	11/21	10/20

주말 포근…일요일 비 온뒤 쌀쌀

이번 주말 광주·전남지역은 잠시 따뜻해졌다가, 일요일 오후 비가 온 뒤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며 기온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러시아 캄차카반도에 형성된 상층 저지기압능(블로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상층 한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또 남쪽엔 따뜻한 고기압이, 북쪽엔 차가운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한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순간 확장하며 13일 광주 최고 기온이 20도를 기록하는 등 날씨가 풀렸다가, 14일 오후에 비가 내린 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다음날 최저 기온이 3도를 기록하는 등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구시스템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봄이면 나타나는 '삼한 사온' 현상이 최근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변덕스런 봄 날씨에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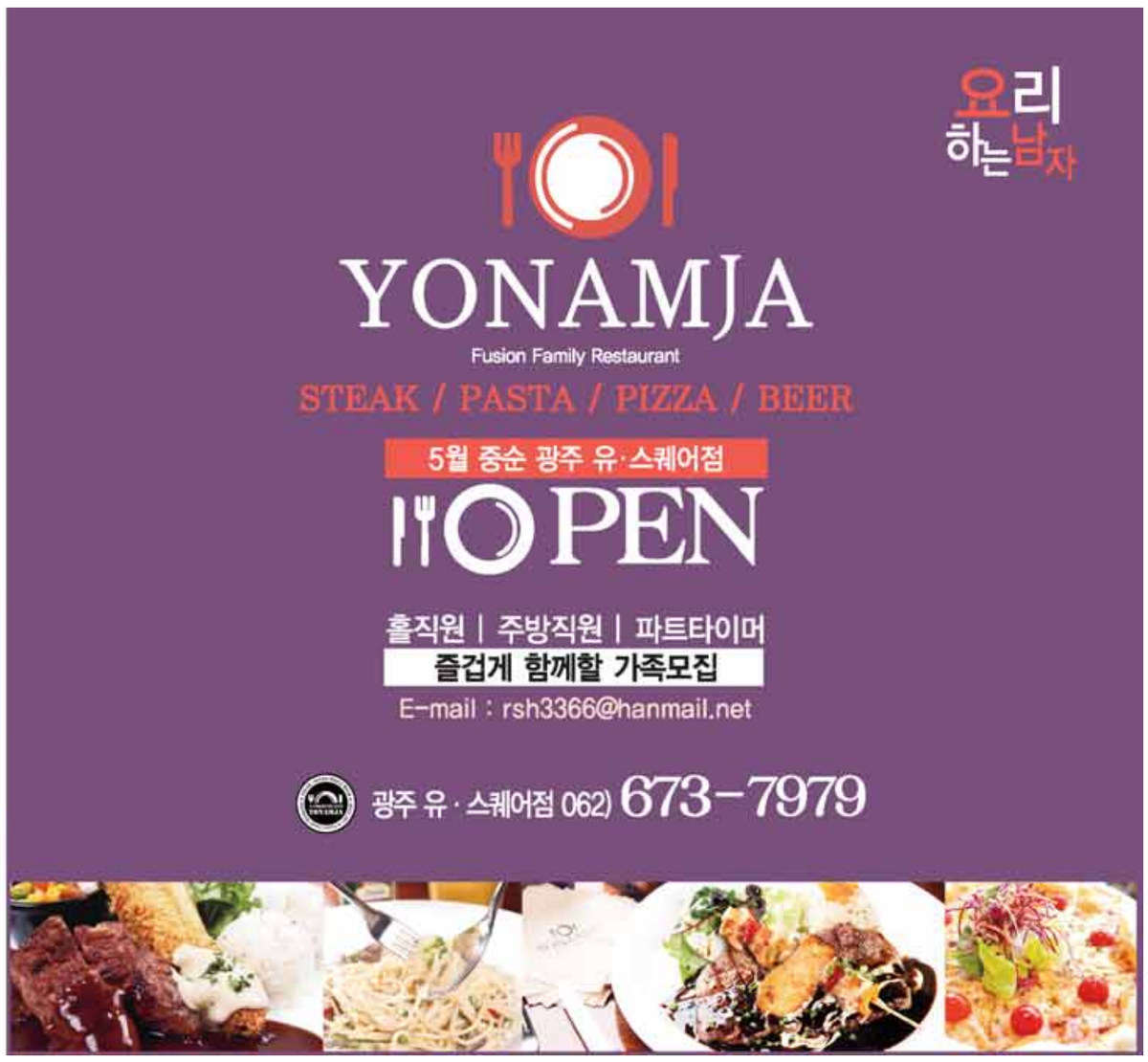
포스텍, 국내 1위

영국 더타임즈 대학 평가

포스텍(포항공과대)은 영국 더타임즈가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아시아권 대학 5위, 국내대학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국 더타임즈가 세계적 연구평가기관인 톰슨-로이터와 공동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포스텍은 일본 도쿄대, 싱가포르국립대, 홍콩대, 베이징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연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논문 피인용지수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포스텍에 이어 중국 칭화대와 일본 교토대, 서울대, KAIST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이밖에 연세대(20위), 성균관대(23위), 고려대(28위)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